

‘챗봇’ 지방세 24시간 상담... 납세자 편의성 ↑

자동차세·재산세 등 6종
납부 시기·방법 등 안내

순천시가 지능형 지방세 안내·납부 서비스로 납세자 편의성 도모하고 나섰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방세 ‘챗봇’을 통해 납세자 궁금증 해소와 납부 편의성

을 위해 지능형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펼치고 있다. 지방세 상담 ‘위택스봇’은 지방세 납부 시기, 납부 방법, 감면 정보 등을 안내하고 상담 해준다. 지방세에 관한 다양한 소식, 혜택과 정보 등을 메시지로 제공(행정안전부)하는 디지털 지방세 상담플랫폼이다.

‘위택스봇’은 지방세 중에서 문의 빈도가 높은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 6개 세목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거나 직접 질문함으로써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납세자는 개인별 맞춤형 안내를 통해 혜택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위택스봇’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지방세 상담 위택스봇 채널을 활용

하거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지방세 누리집(wetax.go.kr)에 접속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지방세 고지서 내 ‘위택스봇’ QR코드 접속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납세자가 지방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고자 민원창구에 문의하거나, 세무담당자에게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었

으나 ‘위택스봇’을 통해 시간과 관계없이 24시간 지방세 민원상담이 가능해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 시책을 발굴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2023년 친환경농업대상 ‘최우수상’



전남도 주관 ‘2023년 친환경농업대상’ 평가 최우수상 수상. 순천시 제공

친환경농업인 재배·생산 분야
벼·밤 재배 선성운씨도 수상

순천시는 지난 2일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친환경농업대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2023년도 친환경농업대상’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면적 확대와 안전성 관리 강화 등을 평가해 유기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적극 선도한 우수 시군 및 농업인에게 수여된다. 시는 △친환경농업 활성화 시책추진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교육 △친

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과수·채소 등 품목다양화 위한 사업 등 양질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추진, 우수한 성과를 거둬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순천시 낙안에서 유기농 벼·밤·고사리를 재배하는 선성운씨가 친환경농업인 재배·생산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는 친환경농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친환경농업 농가들의 꾸준한 노력이 맺은 성과로 앞으로도 유기농업 확산과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매곡동 복지기동대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 어르신 세대를 찾아 청소 활동을 펼쳤다. 순천시 제공

매곡동 복지기동대, 독거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활동

청소·도배 교체 등 개선 앞장

순천시 매곡동 복지기동대(대장 오정원)가 지난 3일 봄비가 내리는 날임에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 어르신 세대를 방문해 청소 및 도배 교체 등 활동을 펼쳤

다. 4일 순천시 매곡동 복지기동대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은 돌봐 줄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는 고령의 어르신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겨울 동안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어르신 건강도 염려되는 상황이

었다. 오정원 복지기동대장은 “매곡동 주민들의 생활환경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유진 매곡동장은 “복지기동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고흥군 ‘고향사랑기부제’ 2년 연속 상호 기부

순천시와 고흥군 복지부서 공무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2년 연속 상호 기부에 동참했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상호 기부는 순천시 사회복지과와 고흥군 주민복지과 직원 각 25명씩, 50명이 참여해 총 5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상호 기부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전달식에는 순천시와 고흥군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홍보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고흥군 복지부서 직



순천시-고흥군 공무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해 상호 기부에 동참했다. 순천시 제공

원들과 지역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해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게 됐다”며

“고향사랑 기부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공익활동가 40여 명이 지난 3일 동천에서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공익활동가, 동천서 플로깅 활동

순천시는 지난달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진행한 3주간의 기본 양성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공익활동가 40여 명이 모여 지난 3일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동천에서 제4회 동네방네 플로깅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여순10·19평화공원 일대에서 진행된 ‘동네방네 플로깅’은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동천을 기념하고 순천시 전역의 역사와 자원을 발굴하는 내용으로 3개 조로 나눠 진행됐다. 공익활동가 1기 기본 양성 과정은 총 4주 차로 진행됐다. 교육을 마친 공익활동가들은 5월 한 달

간 특성화 교육 이수 후 생태·환경,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의제 발굴 및 캠페인 활동 등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토대로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자치행정과 이수동 과장은 “한 달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성교육에 참여해 주신 공익활동가분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많은 공익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시의 난제도 해결하고, 시정에 좋은 정책들도 제시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제4회 이순신 백의종군로 걷기 행사’ 순항

27일 황전면... 공연·체험 다채

순천시 황전면에서 이순신장군의 발자취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제4회 이순신 백의종군로 걷기 행사’가 오는 27일 개최된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백의종군로는 이순신 장군이 관직이 박탈된 채 백의를 입고 고원수 권을 장군을 찾아가는 한양 의금부에서부터 아산, 순천을 지나 경남 합천까지 이동하는 여정을 말한다.

이번 걷기 행사 참가자들은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였던 구간 중 황전면 구간을 따라 걸으며 이순신 장군의 나라 사랑 정신을 새기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427년 전 이순신 장군이 순천 구간을 백의종군하였던 시기에 맞춰 오는 27일에 개최된다. 짧은 코스(왕복 5km)와 긴 코스(왕복 12km)를 선택해 걸을 수 있고 행사장에는 기존보다 더욱 풍부한 공연, 체험행사 프로그램과 먹거리가 준비될 예

정이다. 또 황전면에서는 걷기 행사일에 맞춰 백의종군 맨발길을 조성한다. 황전면 행정복지센터 앞 백의종군로 코스인 철도부지 구간에 길이 220m인 맨발로 걷는 길을 조성하여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처음 선보일 계획이다. 황전면 관계자는 “황전면에서 4번째로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주민자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 문화자원을 보존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특색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